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최장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차 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017년 북·중 무역 평가
3. 품목별 동향
4. 성별 동향
5. 요약 및 전망

주요 내용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말부터 북한 수출을 직접 제약하기 시작. 이후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짐.
- ▶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함.
 - 대중 수출은 16.5억 달러로 전년 26.3억 달러대비 37.3% 감소
 - 대중 수입은 33.3억 달러로 전년 31.9억 달러대비 4.3% 증가
- ▶ 주요 쟁점은 ‘대북제재, 중국의 역할론, 제재 대비, 김정은의 산업정책 의지,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등임.
 - [대북제재] 제재 효과는 북한 수출의 즉각적인 감소로 나타남.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중국 역할론] 중국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 [제재 대비] 제재로 인한 무연탄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임가공 수출(의류·수산물)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확대
 - [산업정책 의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양한 산업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북한경제 상황은 일정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다만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수적. 2017년 수입이 소폭 증가하여 산업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 물가는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 대중 수출은 제재로 인해 전면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무연탄 → 철광석 → 수산물’ 순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면 중단됨.
- ▶ 대중 수입은 ‘무연탄·철광석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 만회를 위해 임가공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김정은 위원장의 부동산 개발 관철’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상반기에 섬유류와 수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
- ▶ 중국 라오닝·지린성과의 무역은 제재로 인해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이들 성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높아졌음.
- ▶ 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북한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2016년 말부터 대북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 수출을 직접 제약하기 시작. 이후 북한의 수출이 빠르게 줄면서 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짐. 이 글은 2017년 북·중 무역을 분석하여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2018년을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을 요약하는 키워드는 ‘대북제재, 외화벌이’

- 북한의 5차 핵실험('16.9.9) 이후 유엔안보리가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직접 제약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UNSCR 2321, '16.11.30) 이후 북한 수출이 확연하게 감소
- 수출 감소로 북한의 외화벌이가 뚜렷하게 감소. 북한의 대중 수출은 26.4억 달러(2011~16년 평균)였으나, 2017년에는 16.5억 달러로 약 10억 달러 감소
- 외화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준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

■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중국의 역할론’ 부상

- 미국이 전면에서 나서 중국의 대북제재 성실 이행이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한다며 대대적 압박
- 결과적으로 2017년 중국은 대북제재에 성실하게 동참
 - 예외적으로 1월·8월 중국해관의 과도한 2016년 북·중 무역 통계 조정, 8월 북한산 무연탄 수입 허용 등 이상동향이 있기는 하였음.
 - 그러나 중국은 연달은 상무부 고시를 통해 대북제재에 동참 의지를 보였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대중 수입을 요약하는 키워드는 ‘제재 대비,金正은의 산업정책 관철 의지,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 제재로 무연탄을 위시한 광물 수출이 막히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의류·수산물 임가공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
- 제재국면에서도 부동산 개발 등金正은 위원장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원부자재 수입 급증
 - 金正은 위원장은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산업정책(경제·핵 병진노선)을 추진. 산업정책의 변화는 수입상품의 구성변화로 이어졌음. 대북제재로 수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면 구매력도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데, 관건은 이를 극복하고金正은의 산업정책을 일선 현장에 관철시킬 수 있는 수준의 수입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임.
- 흥미로운 점은 제재국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임.
 - 북한의 경제상황을 엿볼 수 있는 통계는 3가지(수출입, 물가, 환율).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만 8~12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그 외 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2. 2017년 북·중 무역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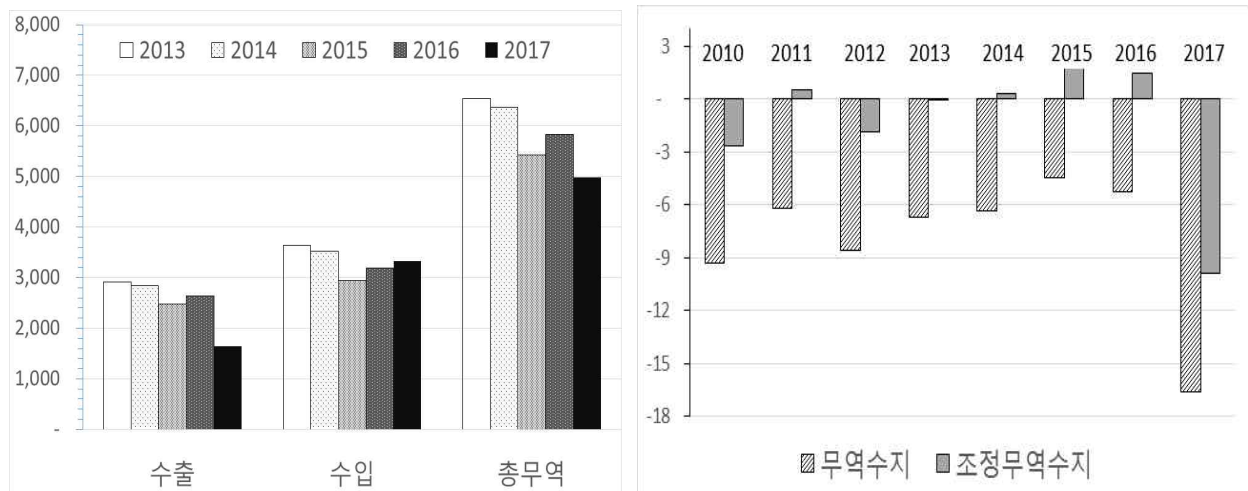
가. 무역 추이

■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은 대폭 줄어든 반면, 예상과 달리 수입은 오히려 늘어남. 북한의 대중 수출은 37.3%(전년대비) 감소, 수입은 4.3% 증가(그림 1).¹⁾

- 대중 수출은 16.5억 달러로 전년 26.3억 달러대비 9.8억 달러 감소. 평균수출 26.4억 달러(2011~16년 수출평균)에 비해서도 작은 규모로, 대북제재로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 의류,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이 대폭 감소
- 대중 수입은 33.3억 달러로 전년 31.9억 달러대비 1.4억 달러 증가. 평균수출 33.2억 달러(2011~16년 수입평균)에 근사한 수치이나, 중국해관이 2014년부터 북한 수입에서 원유통계를 제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입은 평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임.
- 대중 총무역은 49.8억 달러로 전년 58.3억 달러대비 8.5억 달러, 14.5% 감소

그림 1. 북한의 대중무역(좌)과 무역수지(우)

(단위: 백만 달러(좌), 억 달러(우))



주: 조정무역수지는 2010~16년 평균 상품무역수지인 -6.7억 달러를 각 연도 무역수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8. 1. 29, www.kita.ne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무역통계는 모두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것을 활용한 것임. 특별히 2016년 북·중 무역은 통계 출처에 따라 분석 격차가 큰 편인데, 이는 2016년을 전후로 한 무역 통계 분석에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입을 한국무역협회 통계로 분석하면 4.3% 증가하였으나, 중국해관 통계로 분석하면 8.1% 증가함. 이 차이는 증가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16년 통계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는 무역 통계 갱신여부에서 기인한 것임. 한국무역협회는 중국해관이 매월 말 발표하는 북·중 무역 잠정통계를 자료로 제공하는 반면, 중국해관은 자체 보정 후 확정된 통계를 자료로 제공함. 통상적으로 잠정통계와 확정통계의 격차가 크지 않아 (3% 내외) 어떤 출처의 통계를 활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2016년은 출처별 통계 격차가 커 (10% 내외) 어떤 출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임. 자세한 내용은 최창호, 이정균(2017), 「2016년 북중 무역통계의 공개 시기별 격차 비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7-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2017년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그림 1). 이는 북한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상품무역수지는 16.6억 달러 적자. 이는 평균 상품무역수지 6.7억 달러(2010~16년 평균) 적자보다 10억 달러 더 적은 것임.
- 서비스무역수지도 큰 폭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대북제재로 2017년 하순부터 해외 합작 기업(주로 식당)과 해외 파견 노동자(외화벌이 일꾼)도 북한으로 복귀하고 있음.
- 16.6억 달러의 적자로 인해 북한경제가 충분한 양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함.
- 2017년 8월부터 북한 수입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시장물가와 환율도 2018년 하반기부터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흥미로운 점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입이 늘어났다는 점임.

- 2017년 대중 수입은 4.3% 증가. 상품무역 적자 확대는 북한의 외화수급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였음.
- 특히 1~7월 수입이 대폭 증가(전년동기대비)한 반면, 8~12월은 대폭 감소하였고 달을 거듭할수록 감소폭도 커지고 있음.

나. 주요 쟁점

■ [수출] 대북제재 효과는 북한 수출의 즉각적인 감소로 나타남(그림 2).

- 수출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연탄
- 제재에 대한 대비로 1월, 2월 수출이 각각 13.3%, 6.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금지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3~7월, 10~12월 무연탄 수출이 '0(영)'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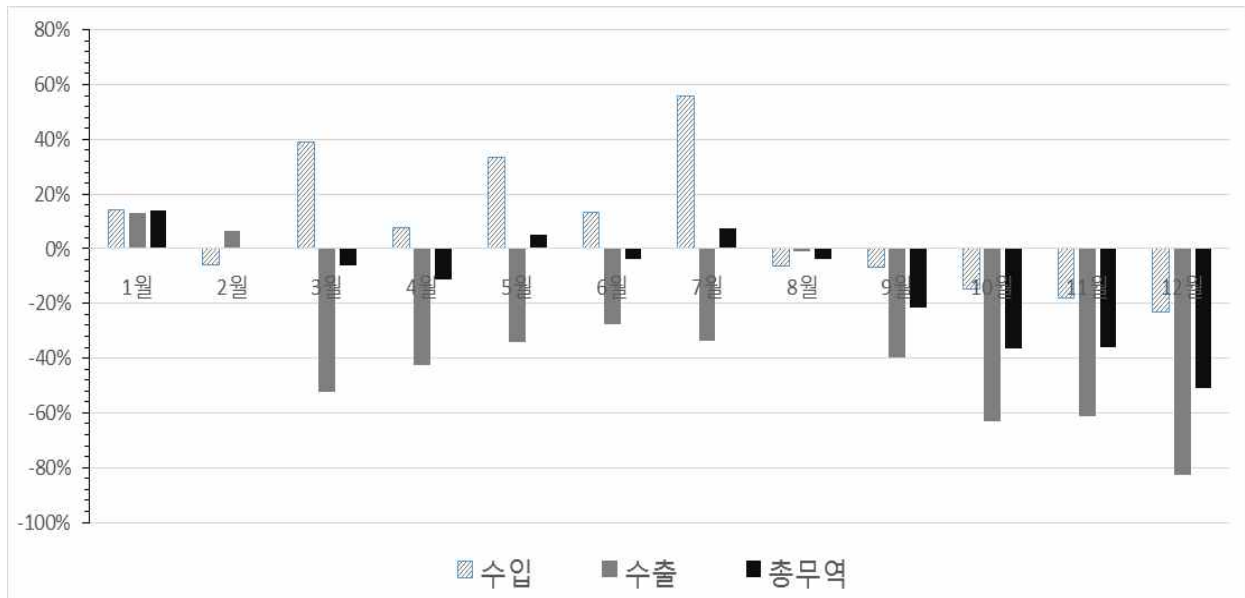
■ [수입] 북한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특징적인 것은 '상반기 수입 증가'와 '하반기 수입 감소'임.
- 이를 두고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음.
- 가장 주류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수입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가설임.
 - ※ 상반기 수입 증가는 제재에 대한 대비 때문임. 무역회사 등 각종 기업이 외화 축적을 위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선(先)수입 후(後)판매(외화로 가격 책정)' 방식으로 시장에 유통시키면서,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상반기에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018년 1월 현재 시장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작년 상반기에 수입된 물량이 시장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재고로 남아있기 때문임.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당해 수입이 충분하여 시장에 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해외 외화벌이가 줄었다고 하나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외화시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소수이기는 하나 ‘북한은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에 수입이 감소하지 않은 것이며, 하반기 수입 감소는 상반기 큰 폭의 수입 증가에 따른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음.

그림 2. 월별 대중 무역 증감률(전년동월대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8. 1. 29, www.kita.ne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 역할론] 중국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표 1,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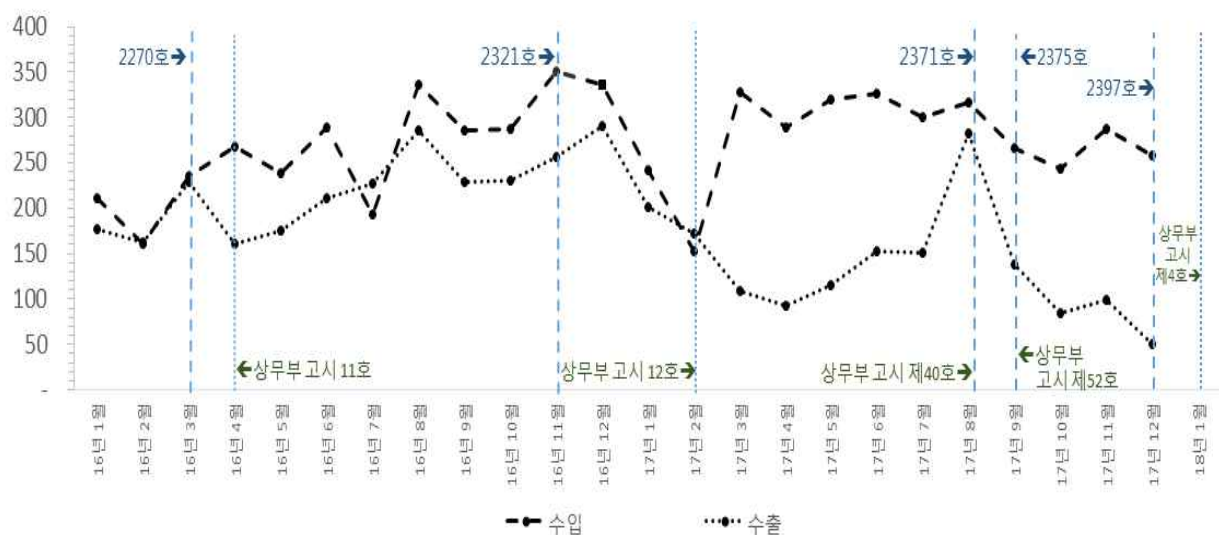
- [수출] 중국은 3차례 상무부 고시를 통해 대북제재 성실히 이행 의지를 보였으며, '17년 대중 수출은 과거와 달리 상무부 고시 발표 이후 급감
- 다만 8~9월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중국해관은 '수입 중단 발표 전 항구에 도착한 물량을 통관시킨 것'이라고 해명. 실제로 10월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은 다시 '0(영)'을 기록
 - 중국해관은 2월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이미 올해 제재 쿼터를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북한산 무연탄 수입은 금지한다.'라고 발표. 8~9월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허용은 2월 발표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 무연탄 수출의 특성(중국이 광산개발 투자 후 반대급부로 현물 형태의 무연탄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8~9월 거래허용은 추가적인 외화의 북한 반입보다는 기존에 회수되었어야 할 대북투자 수익이 제재로 통관되지 못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임.
 - ※ 중국의 대북제재 합의 위배 보다는 중국 내부에 누적되었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민원'을 일시에 해소한 조치인 것으로 추정됨.
- [수입] 대중 수입은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상무부 고시와 무관한 양상을 보임.

표 1.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과 중국 상무부 고시

제재안	관련 사건	대북제재안 주요 내용	중국 상무부 고시
UNSCR 2270 (16.3.2)	4차 핵실험 (16.1.6)	대북 수출 제한: 항공유 수출 금지 ※인도주의 목적 허용 대북 수입 금지: WMD 연계 무연탄 수입 금지 대북 수입 금지: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전면 금지	'16년 11호(16.4.5): 비민생용 북한산 무연탄 수입 금지
UNSCR 2321 (16.11.30)	5차 핵실험 (16.1.6)	대북 수입 금지: 무연탄 수출 상한 설정 은, 동, 아연, 니켈 전면 금지	'17년 12호(17.2.17): 북한산 무연탄 수입 전면 금지
UNSCR 2371 (17.8.5)	ICBM급 미사일발사 (17.7.3, '17.7.28)	대북 수입 금지: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금지 해파노동자 고용 금지: 신규 허가 금지 경협 금지: 북한과 합작 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17년 40호(17.8.14): 북한산 무연탄, 철광석, 철, 납광석, 납,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UNSCR 2375 (17.9.11)	6차 핵실험 (17.9.3)	대북 수출 제한: 정제유와 원유 상한 설정 대북 수입 금지: 직물 및 의류 완제품 해파노동자 고용 금지: 신규허가 금지, 기존 노동자 비자 갱신 금지 경협 금지: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금지	'17년 52호(17.9.23): 대북 석유제품 수출 상한 설정,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UNSCR 2397 (17.12.23)	ICBM급 미사일발사 (17.11.29)	대북 수출 제한: 정제유와 원유 상한 감축,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선박 수출 금지 해파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노동자 24개월 내 전원 본국 송환 해상 차단: 해상 차단 강화로 북한 입출항 선박 단속 강화	'18년 4호(18.1.5): 정제유 및 원유 상한 감축, 대북 수출 금지 품목 확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중국 상무부 고시)와 북한 수출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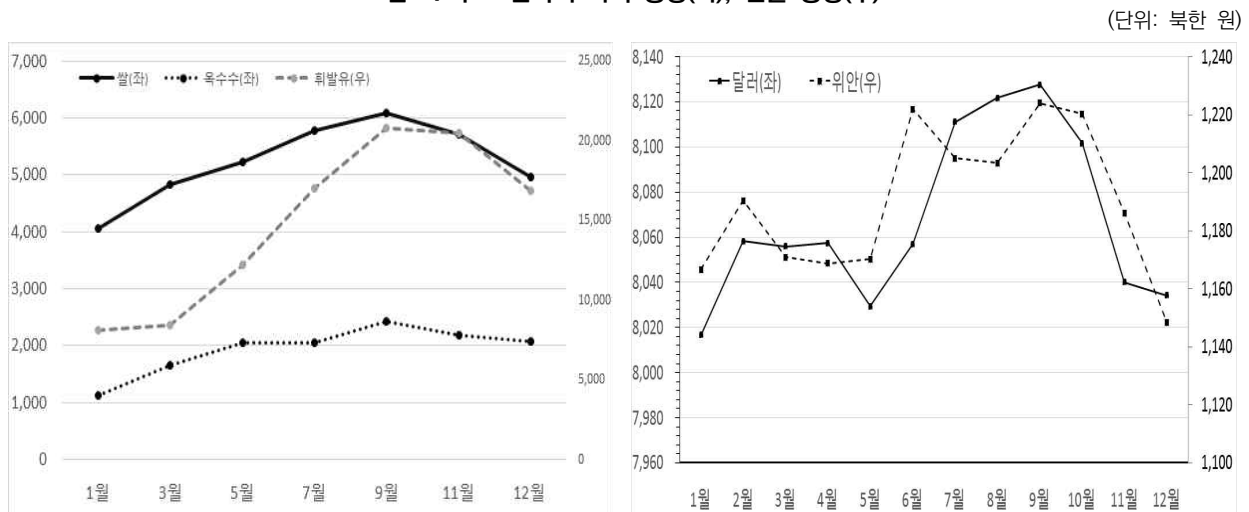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 물가와 환율이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그림 4)

- 제재로 북한내부에 동요가 발생할 경우 주요 상품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시장 물가와 환율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의 변동 폭을 보임.
- 8월 정도에 쌀과 옥수수, 휘발유 등 일부 품목의 가격과 환율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에 안정됨.
- 농산물의 경우, 단경기인 6~7월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변동 양상임.
- 안정적인 물가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물품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 제재로 인해 '미래'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북한시장 물가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안정적인 수입과 물가의 구체적인 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음.
- 다만 월별 수입이 8월부터 감소세(전년동월대비)로 전환되었고 월을 거듭할수록 감소폭도 커지고 있어 2018년 하반기부터는 수입물량 감소와 시장 재고물량 소진으로 시장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그림 4.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좌), 환율 동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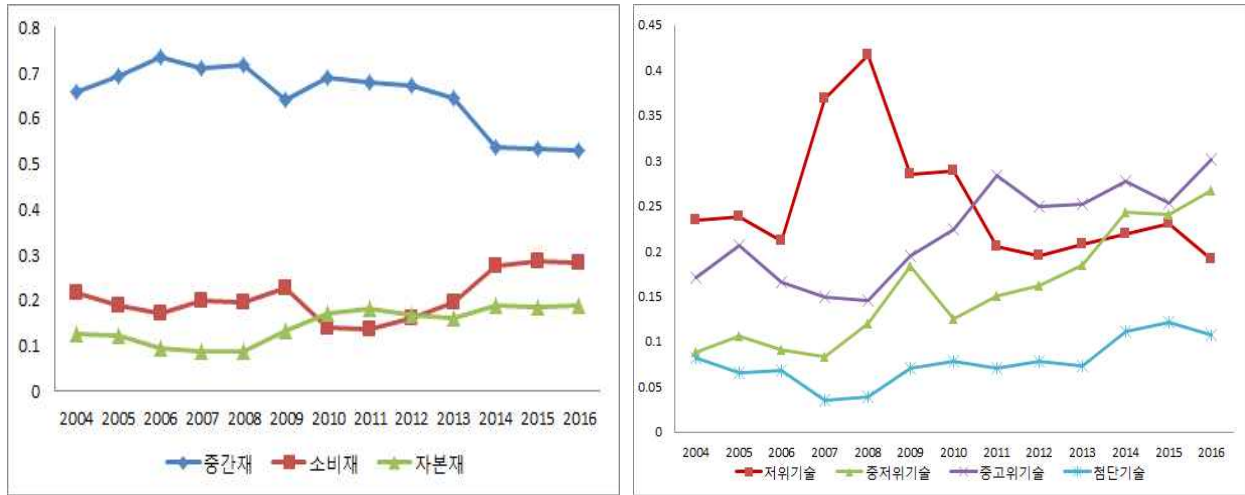
자료: Daily NK(<http://www.dailynk.com>, 검색일: 2018. 2. 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김정은 위원장의 산업정책과 수입]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펼 2013년 이후 북한경제 상황은 일정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그림 5). 제재 국면에서도 산업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관찰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부터 '경제·핵 병진노선'을 필두로 다양한 산업정책을 발표. 산업정책은 수입품의 구성변화를 야기하였는데, 이를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을 엿볼 수 있음.
- 2013년 이후 첨단기술과 중저위기술, 중고위 기술 품목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 이는 고기술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 주민의 구매력 증가, 시장(장마당) 확산 등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임.
- ※ 2017년에도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의 구성 변화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2017년 북한의 총무역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였던 부동산 개발과 맥을 같이 하여 도자기류(내외 인테리어용 내외장제), 가구, 목재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그림 5. 수입의 사용목적별 비중(좌), 기술수준별 비중(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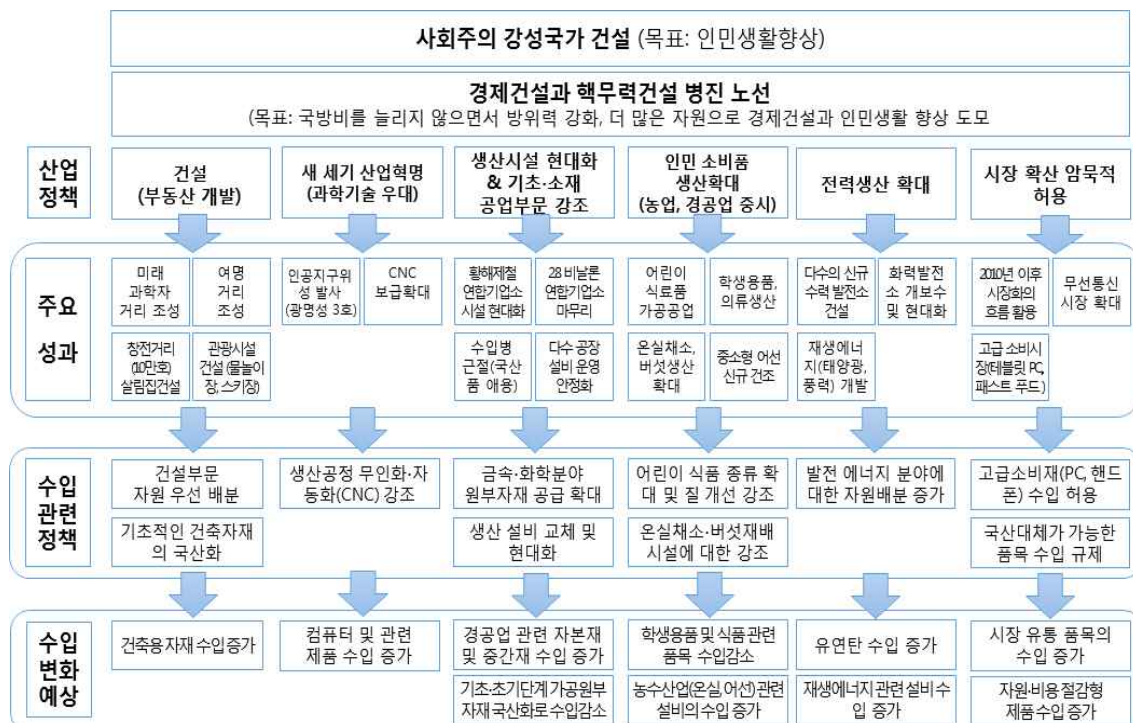
주: UN Comtrade에서 발표한 북한의 총무역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최장호, 임수호, 이석기, 최유정, 임소정(2017),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p. 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산업정책을 현장에 관철하기 위해서는 관련 품목의 안정적인 수입이 필수적

-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부터 '경제·핵 병진노선'을 필두로 다양한 산업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품목의 수입물량 증가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음(그림 6).

그림 6. 김정은 위원장 집권기 이후 산업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자료: 최장호, 임수호, 이석기, 최유정, 임소정(2017),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p. 7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 수입이 대폭 줄어든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산업정책 수정이 불가피

- 모순적이게도 북한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설비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원부자재와 생산설비를 수입할 수 없다면 산업생산이 제약될 수밖에 없음. 현재 추진 중인 산업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함.

■ 다만 2017년 북한 수입은 소폭 증가하여 아직까지는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일각에서는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2016년 경제성장률 3.9%)에서 제재 국면에 접어들어, 제재가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3. 품목별 동향

가. 주요 수출품 동향

■ 북한의 수출은 제재로 전면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대부분의 수출이 줄어드는 양상. 제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수출이 많았으며 상반기 중에 '무연탄 → 철광석 → 수산물' 순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주력 품목 수출이 전면 중단

- 요약하면 무연탄·수산물·의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철광석 수출은 소폭 증가

■ [무연탄, HS270111] 전년대비 대폭 감소로 북한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그림 7).

- 대중 수출은 4.0억 달러로 전년 11.8억 달러대비 66.1%(7.8억 달러) 감소
- UNSCR 2321(16.11.30)과 중국 상무부 고시 12호(17.2.17)로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3월부터 전면 중단됨.
- 제재 대비로 1~2월 대중 수출액이 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 3~7월과 10~12월 제재로 수출액이 '0(영)'을 기록. 다만, 8~9월 중국 상무부의 일시적인 허용 조치로 1.8억 달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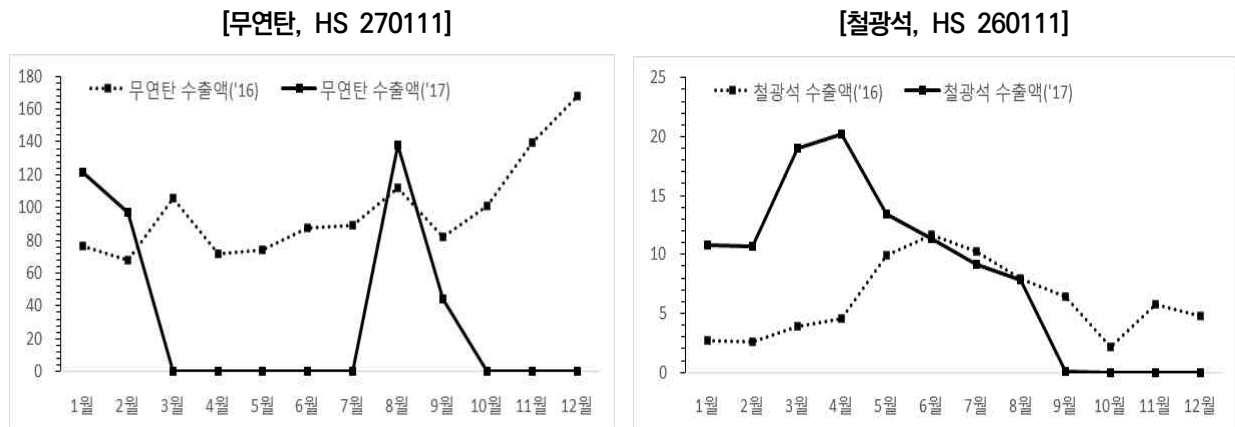
■ [철광석, HS260111] 무연탄 수출의 급감 만회와 제재 대비로 상반기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수출 재고 부족으로 상반기의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함(그림 7).

- 대중 수출 1.0억 달러로 전년 0.7억 달러대비 42.9%(0.3억 달러) 증가
- 상반기 중국 철광산업 과열로 철광석 수입 단가와 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철광석은 수입 단가를 인상하지 않고 밀어내기식으로 수출. 실제 수출이 가능했던 달이 12개월 중 8.5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수출 증가

- 그러나 중반기에 접어들어 북한 내부에 재고로 쌓여있던 수출용 철광석이 모두 소진되면서 수출이 감소함.
- 무연탄 수출의 급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노지에 재고로 쌓여있던 철광석을 임시방편으로 수출(1~4월)하였으나, 재고가 소진되면서 추가적인 철광석 생산을 하지 않고 수출규모가 점진적으로 하락(5~8월)하였던 것으로 판단
- 철광석은 무연탄에 비해 생산과정이 복잡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출하기 어려움.
- UNSCR 2371(17.8.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17.8.14)로 9월부터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전면 중단됨.

그림 7. 무연탄, 철광석의 월별 대중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8. 2. 2, www.kita.ne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산물, HS 03] 상반기에는 제재로 인한 수출 피해를 만회하는 데도 기여하였으나, 제재로 9월부터 수출이 전면 중단됨(그림 8).

- 대중 수출 1.6억 달러로 전년 1.9억 달러대비 15.8%(0.3억 달러) 감소
- 북한은 수산물을 수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무연탄·철광석과 달리 1/4분기가 아닌 2/4분기에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북한의 주력 수출 여종인 황태(명태를 수입하여 임가공), 오징어, 새우, 갈치, 조개(씨조개 임가공), 전복 등의 출하가 5~7월에 집중되기 때문임.
- UNSCR 2371(17.8.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17.8.14)로 9월부터 중국의 북한산 수산물 수입이 전면 중단됨.

■ [의류, HS 61, 62] 2016년에 강화된 북한산 의류 수입 자제의 영향이 2017년에도 이어지면서 수출이 줄어듦(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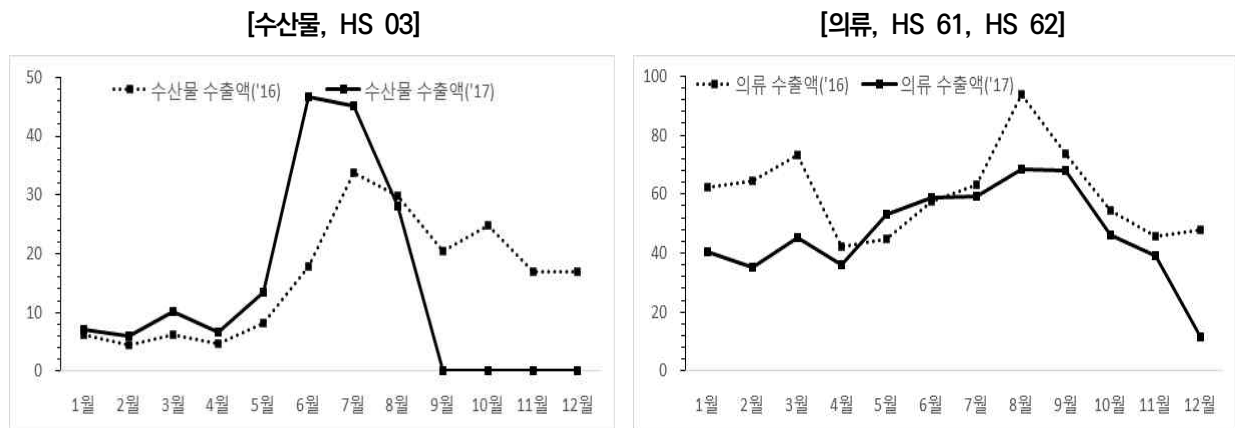
- 대중 수출 5.6억 달러로 전년 7.2억 달러대비 22.3% (1.6억 달러) 감소
- 2016년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으로부터 의류 수입을 자제하는 기조가 강화됨. 그 결과 2016년 북한의 의류 수출이 전년대비 9.5%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감소폭이 22.3%로 커짐.

- UNSCR 2375(17.9.11)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17.9.23)로 12월부터 중국의 북한산 의류 수입이 전면 중단됨.

※ 12월 통계가 '0(영)'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류 수입이 12월 10일 이후에 중단되었으며, HS 61과 62에 제재에서 금하는 의류 외 품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임.

그림 8. 수산물, 의류의 월별 대중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8. 2. 2, www.kita.ne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 수입품 동향

■ [수입 증가 품목]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총 9개 품목임.

- 플라스틱류(HS 39, 2.3억 달러로 전년대비 13.1% 증가), 섬유류(HS 54, 2.2억 달러로 17.0% 증가), 유지류(HS 15, 1.2억 달러로 22.2% 증가), 수산물(HS 03, 1.0억 달러로 37.4% 증가), 섬유류(HS 60, 1억 달러로 19.6% 증가), 섬유류(HS 55, 0.8억 달러로 11.9% 증가), 도자기류(HS 69, 0.7억 달러로 41.2% 증가), 가구류(HS 94, 0.6억 달러로 24.3% 증가), 섬유류(HS 56, 0.6억 달러로 20.0% 증가) 등임.

■ [수입 감소 품목]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율을 보인 품목은 총 6개 품목임.

- 운송수단(HS 87, 2.0억 달러로 전년대비 20.6% 감소), 의류(HS 61, 1.2억 달러로 13.1% 감소), 철강류(HS 72, 0.9억 달러로 26.1% 감소), 광물유류(HS 27, 0.7억 달러로 50.9% 감소), 과일과 견과류(HS 08, 0.7억 달러로 50.9% 감소), 고무류(HS 40, 0.6억 달러로 24.7% 감소)

■ 수입이 증가한 것은 '무연탄·철광석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 만회를 위해 임가공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김정은 위원장의 부동산 개발 관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 만회를 위해 임가공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 수출이 3월부터 어려워지자, 대체 수출품으로 의류(HS 60, 61)와 수산물(HS 03)을 준비한 것으로 보임(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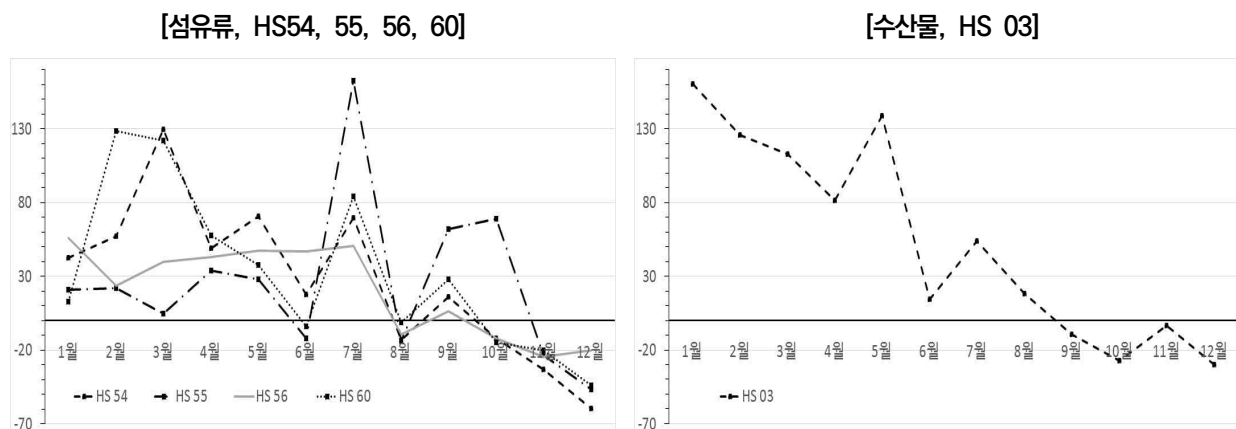
- [의류] 상반기(1~7월)에는 의 임가공 수출의 원부자재인 섬유류(HS 54, 55, 56, 60) 수입이 대폭 증가
-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섬유류 수입이 감소세로 반전. 한·미·일의 공조로 의류수출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하반기 섬유류 수입이 대폭 감소

※ 한·미·일은 2016년 하반기부터 북한산 의류 우회수입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은 2017년 12월부터 북한산 의류 수입 전면 중단

- [수산물] 상반기 임가공에 사용되는 냉동명태(HS 030367) 수입이 많았음. 현지 조사에 따르면 명태를 황태, 동태 등으로 가공하여 중국에 재수출하고 있음.
-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섬유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감소세로 반전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2017년 8월부터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기 때문임.

그림 9. 섬유류, 수산물의 월별 수입 증감률(전년동월대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8. 2. 7, www.kita.ne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 수입 증가의 상당부분은 임가공을 위한 섬유류와 수산물이 이끌었음.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임가공품 수출은 대폭 감소하였기에, 북한 내부적으로 관련 원부자재와 임가공품의 재고가 다수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을 위한 도자기류(인테리어용 내외장제), 가구, 목재 등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였음(그림 10).

-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부동산 개발 정책을 지속. 2017년 북한언론에는 부동산 개발 관련 뉴스가 많이 줄었으나, 부동산 개발 관련 품목의 수입 증가는 연중 지속되었음.
- 특히 총수입이 8월부터 역성장(전년동월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품목의 수입 증가는 11월까지 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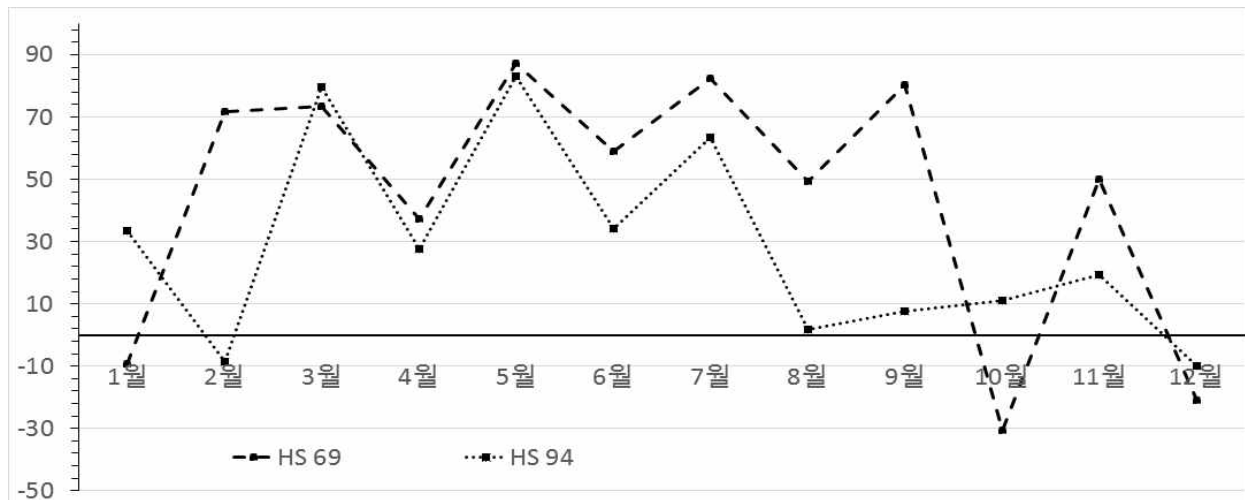
- 이는 제재와 무관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산업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만약 북한경제가 제재로 인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경우,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발표된 대부분의 산업정책 전반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개발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였던 ‘생산설비 국산화, 수입대체,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 등도 부동산 개발과 유사한 형태로 관련 품목의 수입 증가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다만, 관련 분석은 수입분석을 통해 유의미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석 방법 개발과 연구 축적이 필요함.

그림 10. 도자기류(인테리어용 내외장재 HS69), 가구(가구와 건축용 목재, HS 94)의 월별 수입 증감률(전년동월대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8. 2. 7, www.kita.ne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성별 동향

■ 라오닝·지린성과의 무역은 대북제재로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이들 성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높아졌음.

- 두 성과의 무역 규모는 35.5억 달러로 전년 36.2억 달러대비 0.7억 달러 감소
- 반면, 무역 비중은 북·중 무역의 71.4%로 전년 62.1% 대비 대폭 증가

■ 무역 비중에서 라오닝성은 수입을 중심으로, 지린성은 수출을 중심으로 의존도가 높아졌음.

- 올해에도 북·중 무역의 거의 절반이 라오닝성에서 이루어짐.

- 라오닝성의 무역 비중은 49.0%로 전년 43.9% 대비 5.1%p 증가하였음.
- 라오닝성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
 - 수출은 7.3억 달러로 전년 10.4억 달러대비 3.1억 달러 감소 (29.3% 감소)
 - 수입은 17.1억 달러로 전년 15.2억 달러대비 1.9억 달러 증가 (11.9% 증가)
- 지린성의 무역 비중은 22.4%로 전년 18.1% 대비 4.3%p 증가하였음.
- 지린성은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 수출은 4.1억 달러로 전년 3.8억 달러대비 0.3억 달러 증가 (8.9% 증가)
 - 수입은 7.0억 달러로 전년 6.8억 달러대비 0.2억 달러 증가 (3.9% 증가)

■ 라오닝성은 수출보다는 수입을 중심으로 무역이 증가. 전반적으로 제재에 대비하여 산업활동에 필요한 품목과, 시장에서 판매(외화로 결제)하여 외화 수금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수입 증가] 대랴오닝성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11.9%(2017년 북한의 대랴오닝성 수입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플라스틱류**(HS 39, 1.3억 달러 수입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 **전자장치류**(HS 85, 1.3억 달러로 12.6% 증가), **유지류**(HS 15, 0.9억 달러로 14.3% 증가), **합성섬유류**(HS 54, 0.8억 달러로 16.0% 증가), **수산물**(HS 03, 0.6억 달러로 151.6% 증가) 등임.
- 그 외에도 폭발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설탕**(HS 17, 3,597만 달러로 1,704.9% 증가), **밀가루**(HS 11, 3,406만 달러로 1,410.3% 증가)가 있음.
- [수입 감소]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운송수단류**(HS 87, 0.7억 달러로 17.7% 감소), **철강류**(HS 72, 0.6억 달러로 21.4% 감소), **과일과 견과류**(HS 08, 0.5억 달러로 40.2% 감소) 등임.
- 수입이 줄어든 것은 품목별로 사유가 상이함.
 - 운송수단류는 2016년까지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감소함.
 - 철강제품류는 수입대체 강조로 자력 생산에 방점이 찍히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일과 견과류는 2017년 수입액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2016년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기에 감소폭이 크게 평가되는 것임.
- [수출] 수출은 대부분의 광물관련 품목이 감소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대리석과 시멘트**(HS 25), **철강제품**(HS 72)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3천만 달러 내외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

■ 지린성은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이 증가. 라오닝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의류 무역의 일부가 지린성으로 옮겨온 것으로 판단됨.

- 대북제재로 인하여 한·미·일 등 주요국이 라오닝의 대련과 단동의 북·중 무역에 집중되면서, 기존에 라오닝성에서 이루어지던 거래의 일부(특히 의류와 일부 기계류)가 지린성으로 옮겨온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증가] 대지린성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3.9%(2017년 북한의 대지린성 수입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플라스틱류**(HS 39, 0.5억 달러 수입으로 29.3% 증가), **섬유류**(HS 54, 0.5억 달

러 수입으로 20.7% 증가), **의류**(HS 60, 0.4억 달러 수입으로 27.7% 증가), **신발류**(HS 64, 0.3억 달러 수입으로 22.9% 증가), **기계류**(HS 84, 0.3억 달러 수입으로 27.1% 증가), **유지류**(HS 15, 0.2억 달러 수입으로 52.0% 증가), **주류 및 식음료**(HS 22, 0.2억 달러 수입으로 217.4% 증가) 등임.

-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수산물**(HS 03, 1.4억 달러로 2.9% 감소), **광물**(HS 26, 0.5억 달러로 19.8% 감소)과 **목재류**(HS 44, 0.1억 달러로 29.8% 감소)의 수출이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농산물**(HS 08, 0.6억 달러로 134.0% 증가), **의류**(HS 62, 0.5억 달러로 58.3% 증가), **농산물**(HS 07, 0.1억 달러로 117.4% 증가), **주석류**(HS 80, 0.1억 달러로 324.1% 증가), **가죽류**(HS 67, 0.1억 달러로 386.8% 증가)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5. 요약 및 전망

■ [요약] 2017년 대중 무역은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 급감과 수입의 소폭 증가로 요약 가능

- 수입도 8월부터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감소폭도 커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밀무역 성행’이 공식통계의 대중 수출 감소를 만회하고도 남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은 단가 대비 무게의 비중이 커 밀무역으로 거래가 어려운 품목
 - 물론 실제 밀무역을 통해 일부 철광석과 귀금속, 희토류 등이 빈번하게 거래될 수 있으나, 이들 품목의 대북 제재 이전 공식무역 규모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밀무역이 공식무역의 손실을 대체하기 어려움.
 - 또, 한·미·일이 북한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의 해상봉쇄를 하고 있어 대규모의 밀무역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

■ 제재 국면에서도 2017년 ‘안정적인 환율과 시장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무엇보다 북한사회를 엿볼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전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 접경지역 현지조사를 통해 북한경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평양과 신의주, 원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관련 정보도 관찰에 의존한 것이 많아 매우 제한적임.

■ [전망] 2018년 북·중 무역은 수입과 수출 모두 감소가 불가피.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는 명확. 다만, 수입 감소의 구체적인 품목과 폭은 ‘북한이 가진 외화 규모와 김정은 위원장의 산업정책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북한의 수출은 대북제재로 무연탄, 철·철광석, 납·납광석, 의류, 수산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수입 역시 제재로 모든 기계류, 전자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는 2017년 수준(16억 달러)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상품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더욱 감소시켜야 할 것이나, 이는 북한 시장의 물가상승, 산업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
- 통상적으로 북한이 가진 외화를 대략 40~50억 달러 정도로 추산. 2017년에 이미 16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 2018년에도 대략 16억 달러의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면 북한이 가진 외화의 상당량이 소진되면서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이 제재로 인한 경제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안정화되었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수입의 감소폭을 줄이거나 오히려 확대한다면, 그만큼 보유한 외화의 소진 속도가 빨라질 것임. 반대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의 감소폭을 늘린다면, 외화의 소진 속도는 늦어질 것이나 경제 둔화로 인한 산업생산 저하, 시장 축소, 주민 생활의 악화는 커질 것임.

■ [수입 감소의 영향]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8년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가진 외화 규모에 대한 가정이 맞다면, 북한 수입은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수입이 감소할 경우, 이르면 2018년 하반기, 늦어도 2019년 상반기부터는 제재로 인해 시장 축소, 북한 주민의 구매력 감소, 산업생산 위축 등 북한경제의 둔화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제재의 영향은 북한의 월별 수입 감소, 시장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관찰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일각에서는 제재로 인해 시장의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반대로 북한 주민이 외화사용을 꺼리면서 시장 재고가 소진되지 못해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
- 다른 한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추진되었던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 수입이 감소한다면 산업활동을 위한 원부자재 및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 하였던 '부동산 개발, CNC 기술 개발에 기반한 자본재·시설재·소비재 국산화'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 [수출 감소의 영향¹⁾] 무연탄 수출 감소는 외화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내수용 무연탄 생산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음.²⁾

- 무연탄 수출은 수입대금 마련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또, 그간 중국의 투자로 수출용 무연탄이 생산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식량의 일부가 내수용 광산 근로자에게 지급됨. 어떠한 방식이든 수출용 광물 생산이 내수용 광물 생산과 연계될 경우, 수출용 광물 생산을 위한 지원(식량, 의류, 부품, 기자재)이 줄면서 내수용 광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임.
- 2018년에는 축적된 외화재정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광업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심할 경우 생산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2) 임수호, 양문수, 이정균(2017),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수출 감소의 영향2] 철광석 수출 감소는 산업활동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큼.³⁾

- 철광석 수출은 현금보다는 주로 현물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철광석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제철소 제강에 필요한 코크스를 공급받는 방식을 가짐.
- 때문에 철광석 수출이 감소할 경우, 제철소의 제강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시설현대화 추진과 철 관련 원부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만약 산업활동 둔화를 막으려고 코크스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수입한다면, 외화의 고갈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

■ 현 국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의 대북제재 기초를 유지하는 것을 제언

- 현재의 제재는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제재가 일정정도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시장물가와 환율도 201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제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결국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제재 기초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 KIEP

3) 임수호, 양문수, 이정균(2017),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